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6년도 제1차 회의

1. 일 자 2006년 1월 5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박 승 의 장 (총 재)
김 태 동 위 원
이 성 태 위 원 (부총재)
김 종 창 위 원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이 상 용 감사 정 규 영 부총재보
정 방 우 부총재보 박 재 환 부총재보
김 수 명 부총재보 이 영 균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 김 수 호 금융시장국장
이 광 주 국제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광 준 공보실장 박 광 민 조사국 물가분석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호 — 200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1) 담당 부총재보가 200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공표하고자 한
다는 내용의 제안 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개방경제 하에서 통화정책 결정시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해외 경제에 대한 전망도 고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에 해외경제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 반드시 1월에 수립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전년 말에 수립 가능하도록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수립에 관한 규정」 중 당해연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의 발의시기를 ‘매년 1월중’으로 정해 놓은 부분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6조에 의거 200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200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생략)

나. 보고안건

<보고 제1호 —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시행 2차년도 평가>

(1) 조사국장이 보고 제1호 —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시행 2차년도 평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확대되어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 지표물가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통계지표나 자료가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난해 석유류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에 비해 석유류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에 미친 영향이 커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과거 4분기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한 적응적 기대인플레이션과 미래 예상에 기초한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나누어 볼 때 4분기 이동평균

이 현재 물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향후 물가에 대해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실제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경제전망의 정확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 또는 외부 요인 변화가 물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민간의 기대 요인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로 근원인플레이션을 쓸 것인지 또는 소비자물가를 쓸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구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소비자물가를 대상지표로 하는 국가 간에 어떤 유의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사후적인 물가변동요인 분석 외에 사전적으로 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 물가를 결정짓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아울러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특징적 요인 및 중점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동 위원은 물가안정의 중요성과 아울러 단기적으로 성장, 고용 등 다른 목표들과 충돌이 발생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경기 활성화를 고려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통화신용정책이 수행되고 있음을 국민들이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정책시차를 감안하여 2007년 이후 물가목표 설정이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대상기간을 현재와 같은 3년 중기로 할 지 아니면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을 지의 문제와 관계없이 장기 전망능력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작년과 재작년의 금리 및 재정정책 요인이 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근원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도 전망치와 실적치 간 차이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 첨)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시행 2차년도 평가』 보고내용

1. 2005년 중 물가동향 및 특징

2005년에는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에 따른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 미약, 원화환율 하락 및 농축수산물가격 안정 등에 기인하여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이 각각 2.7%, 2.3% 상승에 그쳐 전년(소비자 3.6%, 근원 2.9%)에 비해 상승세 크게 둔화되었음

소비자물가를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 및 서비스요금이 안정되었으나, 석유류 등 공업제품가격은 높은 오름세 지속. 기간별로는 상반기중 3%대 초반(전년동기대비)의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나 3·4분기, 4·4분기중에는 각각 2.3%, 2.5%로 상승세 둔화되었음

또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중기 물가안정목표 하한을 하회하였는데 이는 서비스요금의 전반적인 안정, 전년 하반기중 높은 상승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하반기들어 2%를 하회한데 주로 기인함

한편, 2005년 중 물가변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2004년에 이어 석유류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였고; 둘째, 농축수산물가격이 이례적인 안정세를 보였으며; 셋째, 수요압력이 미약하여 경기상황과 밀접한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2004년에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하였고; 넷째, 2004년 중 상승률이 1% 중반으로 둔화되었던 집세가 2005년에는 하락으로 반전하였으며; 다섯째, 지표물가(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생활물가)간의 괴리가 확대된 점 등을 들 수 있음

2. 2005년 중 물가여건

2005년 중 물가여건을 국내여건과 해외여건으로 나누어 보면,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압력이 저조한 데다 임금 및 주택가격 안정 등으로 국내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 반해,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기타원자재가격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등 해외여건은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

음. 다만 원화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수입비용 상승부담을 상당폭 상쇄하였음

한편 실제 물가상승률과 전년 12월의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이 크게 안정된 데다,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보다 낮아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 모두 전망치를 하회하였음

3. 향후 과제

앞으로 중기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의 정확성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기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 및 물가안정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